

엄마가

글 곡 김성만

♩ = 96



아하 아 - 름답 게 아 줌마답 게 답 게 가 무엇인- 지 모르겠 지 만



노 동자답 게 사 람답 게 사 는 길 찾아가 려 다 밥 밥



밥 하는아 줌 마 아 줌 마 처 지 좀 생 각 하세 요 -



처 지 가 무엇인- 지 모르겠 지 - 만 처 지 좀 바 꾸 불란 다 -



엄 마 가 좋 은 세 상 만 들 어 줄 게 만 들 어 줄 게 -



비 정 규 직 없 고 차 별이 없 게 꼭 꼭 꼭 -



엄 마 가 너 랑 함 께 걸 어 갈 께 야 두 손 꼭 잡 고 -



애 기 나 누 며 웃 음 꽃 피 는 그 런 세 상 에 -